

“힘든 길 선택이 오늘의 ‘핫6 이정은’ 만들었죠”

순천 출신 골퍼 이정은 LPGA 홈페이지에 ‘아직 남은 나의 길’ 게재

순천 출신으로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을 차지했던 골퍼 이정은(24)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수필을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했다.

2일 LPGA 투어 홈페이지에 실린 ‘아직 남은 나의 길(MY ROAD LESS TRAV- ELED)’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정은은 글을 통해 “원래 계획이었다면 19살에 모든 것이 편안한 순천 집 근처의 티칭프로가 되었겠지만 선택의 결과 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6번째로 ‘이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됐다”며 프로 데뷔 과정을 설명했다.

이정은은 “나는 9살에 골프를 시작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트럭을 운전하셨는데, 내가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일으켰다”고 썼다.

그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골퍼가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때릴러 배우는 기분이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3년간 골프를 쉬었다”고 밝혔다.

이후 “15살 때 티칭프로가 되기 위해 골프를 다시 시작했다. 17살에 서울의 유명한 감독님이 학교와 골프를 병행할 수 있는 골프 아카데미 기숙사에 들어오겠다는 제안을 하셨다”고 돌아봤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로부터 떨

네살때 아버지 교통사고·가난 “17세때 서울 골퍼유학 전환점” 순천 티칭 프로가 원래 계획

어지가 싫었고 두려웠지만 움직이기로 결심했다”며 “그것이 나의 전환점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때도 “바로 여기에서 내 이름 끝에 있는 숫자 ‘6’이 유래되었고 나는 숫자에 불쾌했다”고 몸을 낮춘 이정은은 “이후 2년차인 2017년 4번 우승하고 상금왕을 차지했다”고 본격적인 성공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그해 US오픈에 처음 출전, 3라운드 마지막 조에서 경기하는 등 5위로 선전한 이정은은 “그때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미국 진출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를 소개했다.

2018년에도 KLPGA 투어 2승을 거두고 상금왕에 오른 이정은은 “그때 내 인생의 또 다른 갈림길과 마주했다”고 미국 진출을 두고 고민했던 시기를 떠올렸다.

그는 “한국에서 익숙한 사람, 문화, 언어 속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LPGA 필리파인스스에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며 “골퍼가 아닌 다른 모든 것



이정은(왼쪽)이 프로로 데뷔하기 전인 2013년 가족과 함께 순천 필리파인스 골프 연습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에 대해 긴장되고 두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순천에서 서울로 오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 고생스럽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LPGA에서 뛰거나 US오픈 우승, 신인왕 등은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돌아봤다.

이정은은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고, 신인 때 영어 실력 때문에 기자들에게 미안했다”며 “그래서 신인상 수상 연설 때는 3개월 동안 연

설문 연습을 했다. 연설을 마친 후 큰 박수를 받았는데 눈물이 날 만큼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썼다.

그는 “모든 삶에는 전환점이 있고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쉽거나 편하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길은 늘 그렇다. 앞으로 남은 자신의 길에서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도 신임 농업박물관장에 임영호 전 CBS 제작보도국장



임영호(60·사진) 전 광주CBS 제작보도국장이 1일자로 신임 전남도 농업박물관장에 임명됐다. 임영호 씨는 전남대 도시관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CBS 보도제작국장을 비롯 전남CBS 보도제작국장,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 신임 관장은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자 문화의 씨앗이다”며 “농업박물관을 농업테마공원과 영산호 관광지가 어우러진 전남 관광활성화의 핵심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할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연 관람객 5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에 박세종씨



전남도교육청은 4급 개방형 직위인 홍보담당관에 박세종 현 도교육청 홍보비서관을 임용할 예정이다.

박세종 임용예정자는 전남대 홍보담당관, 홍보팀장급과 언론홍보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2018년 7월부터 전남교육청 홍보비서관으로 임명돼 재직 중이다.

도 교육청은 추후 임용 결정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7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홍보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홍보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홍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박시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목련장 반아



박시현(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유공직원 표창장 전수식을 열고 박 위원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위원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정책제안과 농촌관광 정책 도입과 개선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훈 선임연구원은 대통령 표창을, 한천희 책임행정원은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받았다. 이계임 선임연구위원과 임영아 부연구위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각각 우수 연구보고서상과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상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신임 회장에 주정화씨

여성 농산물 소비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신임 회장에 주정화(62·임곡농협·사진)씨가 선출됐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사)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정화 분회장을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10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우수분회상에 임곡농협을, 우수조직상에 평동농협



을 선정·시상했다. 주 신임 회장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 나가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6·25 유공자故 박영조 상병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동구, 조카 박효식씨에 전달

광주 동구(청장 임택) 지원1동이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유공자(故) 박영조 상병의 조카 박효식씨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

국방부와 육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전쟁 무공훈장 찾

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긴박한 전장 상황에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박 상병은 무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1953년 당시 최대 격전지인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 전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이 맛에 산다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콘대인턴 스페셜(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영정	00 영혼수선공(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빅스웃 55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모세모
0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티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팔도방송(재)			00 뉴스브리핑
0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5 콘대인턴(재)	
0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공부가 머니? 스페셜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0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풀썸 영화가 좋다	00 5 MBC 뉴스 3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0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다Q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08	10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콘대인턴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0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더 라이브	00 영혼수선공	05 실화탐사대	00 트롯신이 떴다
11	35 UHD 송터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도올학당 수다승철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영상앨범 선(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7:45 피피루 안전특공대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2:30 EBS 마스터	18:00 생방송 토티!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형사 가제트
07:45 로보카 폴리	13:50 EBS 초대석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땡땡땡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출동! 슈퍼왕스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20: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와 해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북유럽 제대로 즐기
09:30 페파 피그	15:25 출동! 슈퍼왕스(재)	-눈의 왕국 핀란드>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10 픽시(재)	금요일의 우리 집 3부 사랑이 꽃피는 한옥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0 땡땡땡 유치원(재)	22:45 극한직업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개구쟁이 스머프	23:45 EBS 명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일(음 윤4월 12일 丁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48년생 구색을 다 갖추다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어진다. 60년생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 잡히는 것이 있으리라. 72년생 소용없을 일이니 내버려 두라. 84년생 예의 주시해야 할 바이다. 96년생 호사다마요, 새옹지마에 비유 할 만하므로 기뻐할 일도 슬 펴할 일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2, 60



丑

37년생 반복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위상이다. 49년생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1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점을 이룬다. 73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성으로써 도의를 다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 85년생 방치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하라. 97년생 순리에 따른다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09, 73



寅

38년생 머지않아서 길조가 상응할 것이니 수용할 대비를 하라. 50년생 두루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62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성과를 본다. 74년생 활로를 열어 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86년생 바뀔 수 있다. 98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실감이 크겠다. 행운의 숫자 : 76, 84



卯

39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51년생 성과가 불만족스럽겠다. 63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판공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된다. 75년생 예정되어 있던 돈이 들어 올 것이니 조바심은 버려라. 87년생 상투적인 일상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99년생 역사사자해보면 답이 나온다. 행운의 숫자 : 24, 61



辰

40년생 지연 된다면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2년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발버둥 치면서 어렵사리 위기를 모면하는 국량이 나타나 있다. 76년생 지속적이라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88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들 것이다. 00년생 객관적이지 못하면 무의미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2, 67



巳

41년생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53년생 내용이 알찬 만큼 포장까지 깔끔하다면 금상첨화이니라. 65년생 순식간에 벌어지고자 할 것이니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 77년생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다. 89년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 되리라. 01년생 합의에 선택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75



午

42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54년생 당치도 않으니 꿈도 꾸지 말라. 66년생 바라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78년생 막연하다면 실수가 잦을 것이니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90년생 함께 하되 굳이 상호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다. 02년생 효과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 37, 66



未

31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에 정답이 있음을 간파하지 말라. 43년생 해결할 역량이 충분하니 남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55년생 어떠한 기준이든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67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79년생 무리하면서까지 억지로 행할 필요는 없느니라. 91년생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완벽하게 대처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6, 80



申

32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44년생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56년생 눈에 띄는 하자가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68년생 부드러운 운세다. 80년생 기본적인 관계와 입지를 중시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피해 갈 수 있다. 92년생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14, 82



酉

33년생 나타나는 효과가 커진다. 45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면 면모이니라. 57년생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69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81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 되는 형국이다. 93년생 초기에는 영세하나 나중에는 성황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39, 74



戌

34년생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것이 맞다. 46년생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반드시 빈틈을 보이게 되어 있다. 58년생 대국적으로 임해야 실속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다. 70년생 상실감에 빠진다. 82년생 도움이 될 것이니라. 94년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27, 55



亥

35년생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느니라. 47년생 상호간에 이해하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 59년생 고급층 상대에 맞추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71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83년생 본격적인 국면이다. 95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9, 59